

GANGJIN 

Web Contents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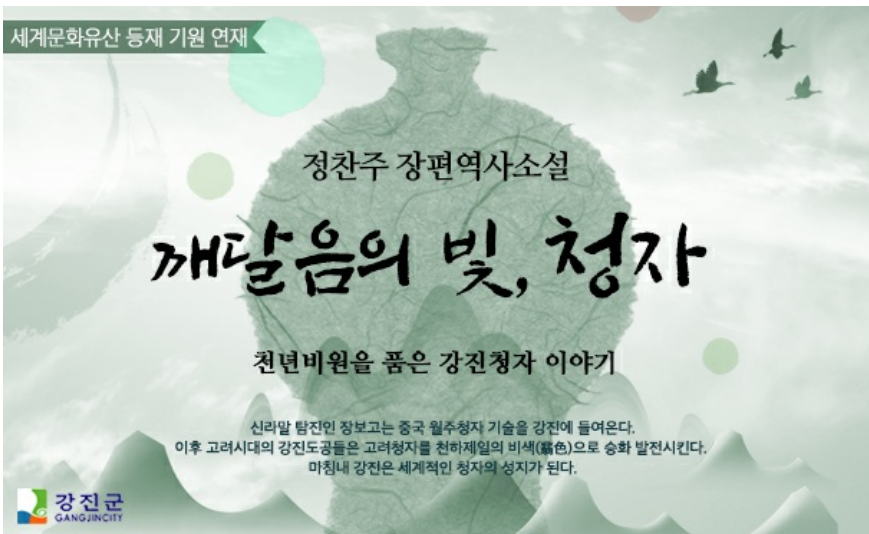
목차

목차	2
역사소설 - 전체	3
깨달음의 빛, 청자 (4회)	3
첨부파일(2)	3

깨달음의 빛, 청자 (4회)

작성일 2023.03.16 14:30 등록자 장기승 조회수 596

첨부파일(2)  깨달음의 빛, 청자4.pdf 198 hit/ 4.89 MB [다운로드](#) [미리보기](#)
 강진 청자 이야기 팝업.jpg 33 hit/ 156.1 KB [다운로드](#)



목록

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.

[댓글등록](#)

이인석 작성일2023-03-17 01:04:15

그리 오래 전도 아니지만 경건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제를 지내며 소원을 빌던 때가 우리에게도 미덕이었죠. 지금은 번거롭고 귀찮은 이유로 모든 것이 간소해졌지만 토기를 굽기 전에 제를 지내는 것을 보며 문득 그 시절을 추억하게 됩니다. 궁복처럼 인품과 무예가 뛰어난 자라면 누구에게나 맘에 들겠지만 장보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선보이는만큼 부디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.

이남섭 작성일2023-03-16 22:56:33

탐진땅 아름다운 풍광과 소박한 민초들의 이야기가 잘 그려진 4회 잘 읽었습니다.
궁복에서 장보고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과정이 우연함이 아니라 오랜 성찰의 결과다.
정 족장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여러 사람을 살리고 있다. 나도 직장에서 은퇴한 후 마을을 위해 작은 봉사를 하고 있다지만.
정 족장의 인품에 고개를 숙인다.장 보고의 활약이 점점 흥미를 더해 간다. 다음 호가 그 만큼 기대된다.

문봉균 작성일2023-03-16 21:23:49

궁복의 큰꿈

그분은 신라시대부터 파란색이 크신 분이거든요. 많이 보아야만 합니다.

<http://www.gangjin.go.kr>

궁복은 버터사부더 사남들이 굶어 죽은 것들 많이 보아왔다고 한다.
따라서 굶주린 사람들을 도우려면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.
정 족장에게도 군관과 장사꾼 중 택일을 하려면 큰 장사꾼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궁복.

정 족장은 훌륭한 군관이 될 소지가 충분한 궁복이 장사꾼이 되겠다는 말이 잘 믿기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다.
"배고픈 사람들을 도울라든 군관보단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되어야 하지라우".
궁복의 말에 정 족장은 감복하여 명품 술잔을 선물하며 궁복이 자신보다 큰 사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.

궁복은 이름도 '재물을 지킨다'는 뜻의 '보고(保阜)'라 짓고 정 족장과의 인연을 이어가리라 다짐한다.
그러려면 정년을 친 동생처럼 챙기고 토기가마에도 능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장보고.
그의 원대한 꿈이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며 앞날에 순풍이 불기만을 기원한다.

GANGJIN

Web Contents

